

# 온라인 판매 업체류의 잔류농약 모니터링

## I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을 통한 식품 소비가 일상화되면서, 오픈마켓, 소셜커머스 등에서 생산자를 통한 직접 판매가 새로운 유통 수단으로 자리를 굳혀가는 가운데 온라인 직거래 농산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
- 업체류는 단위 중량에 비해 표면적이 넓어 살포농약의 작물체 부착량이 많고, 실내재배로 인해 다른 농산물에 비해 잔류농약 검출률이 높으며, 시민 다소비 품목임
-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판매 유통 형태를 오픈마켓·소셜커머스와 온라인 종합쇼핑몰·대형마트 온라인몰로 나누어 잔류농약 안전성 실태를 조사하고자 함

## II 연구개요

- 기 간 : 2023년 1월~12월(1년)
- 대 상 : 온라인 판매 업체류 118건
- 항 목 : 식품공전의 7.1.2.2 다성분 시험법 제2법에 의한 잔류농약 478종 분석

## III 연구결과

- 온라인 판매 업체류의 잔류농약 분석 결과 검출률이 78.0%(92건/118건)으로 나타났으며, 품목별로 살펴보면, 깻잎 92.1%(35건/38건), 상추 67.5%(27건/40건), 엇갈이배추 75.0%(30건/40건)이었음
- 유통형태별 잔류농약 검출률은 오픈마켓·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업체류가 74.6%(44건/59건), 온라인 종합 쇼핑몰·대형마트에서 구매한 업체류가 81.4%(48건/59건)으로 나타났으며,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 2건은 모두 오픈마켓·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업체류였음
-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농약인 Pyflubumide와 Buprofezin은 각각 깻잎과 상추에서 1건씩 검출되었는데, 두 농약 모두 깻잎과 상추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한 PLS 기준을 7배와 174배 초과하였음
-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Pyflubumide와 Buprofezin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%ADI가 각각 0.03, 1.80으로 안전한 수준으로 나왔음. 그러나, 온라인 판매 농산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차단이 필요하며,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판매 농산물을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

## IV 정책연계방안

- 온라인 판매 업체류의 잔류농약 실태 파악으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
- 온라인 판매 농산물의 생산자 표기에 대한 행정절차와 규제 제안

## V 활용계획

- 온라인 판매 업체류의 잔류농약 안전성 실태를 파악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